

익산, 환경친화도시 조성 행정력 집중

시민건강권 보장, 시정 방향 환경중심으로 개편 환경관련 조직·제도 정비, 환경 예산 증액 편성

익산시가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3일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시정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관련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다. 현재 2개과의 환경조직을 3개과로 확대하고 환경직 공무원을 현재 42명에서 2022년까지 62명까지 증원한다.

또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신고포상금제 도입, 환경정책기본조례 개정,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도모한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환경분야 읍보즈맨 개편, 시민과의 환경정책 방향 수립,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 등에 나선다.

시는 환경관련 예산을 올해 1724억 원에서 30% 증액된 2196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매년 10% 이상 예산을 증액한다.

시는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 시민·환경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여기에 일회용품 사용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확대, 나무심기 등 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에 주력한다.

사업장 설치단계부터 악취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치,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또 대기환경 일일시스템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통합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원수수질 관리 강화, 급수구역 조정, 오·우수관 분리를 통한 하수처리시설 효율개선, 공공하수처리장 최적운영 등에 주력한다.

시는 또 친환경농업 선도지역 조성,



23일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시정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우렁이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나선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 및 장점마을 후속대책 강구, 유관기관과의 합동지도점검 등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을 강력추진하고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500만그루 나무심기, 민자공원조성 등을 통해 환경친화도시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친화도시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에는 대기환경팀, 수질보전팀, 친환경농업팀, 자연환경팀, 시민참여팀이 구성돼 관련 사업 등을 전개한다. /익산=장인천 기자·장영원 기자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100억 돌파

발행 40일만에 성과

군산사랑상품권이 지류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발행한지 40일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타 시군에서 발행 7개월 만에 20억원~100억원 남짓 판매된 것과 비해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의 정착속도가 높았다.

모바일 상품권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주된 이유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즉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은 원격결제 가 가능해 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아이들 학원비를 결제할 수 있어 아이들 학원비로 상품권을 이용한 학부모들은 종이상품권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원격결제는 가맹점주가 '지역상품권 가맹점' 앱에서 원격결제가 가능한 상품을 등록하면 된다. 원격결제 상품이 등록되면 소비자는 가맹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상품권 차(CHAK)' 앱의 가맹점 찾기에서 해당 가맹점 상품에 대해 앱에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새롭게 추가된 선물하기 기능은 모바일상품권 이용 연령 확대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확산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상품권은 만 19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 즉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은 원격결제가 가능해 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아이들 학원비를 결제할 수 있어 아이들 학원비로 상품권을 이용한 학부모들은 종이상품권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방식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촉구

군산시의회, "군산경제 돌파구 필요" 강조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017년 7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영자 경제건설위원회장은 "군산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장기화로 군산 경제는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현대중공업은 적극적으로 조선소의 재가동 추진 또는 재가동 의지가 없다면 매각 내지 업종전환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는 2010년 준공 후 총 70척의 선박 건조로 약 6조5000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관련 업체 업체 151개소, 근로자 6,300여명으로 군산시 전체의 13.4%, 근로자 인원 24%를 차지하면서 자동차 산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

하겠다'고 공약 했으며 군산시민들 또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꾸준히 요청하고 불록이라도 배정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선박수주물량이 나아지면 재가동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 외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공약 때문에 세월만 보내고 있는 지 의심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성토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자전거 사고 전 시민에 보험 혜택"

익산시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

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익산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

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에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실시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는 사망자의 상속재산 한 번에 해결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2017년에는 811명, 2018년 938명, 2019년 9월 현재 742명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했고 일선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함 안내와 홍보로 본 서비스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정보), 국제정보(체납액·고지액),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등 총 6종류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창립·정기회의

익산시는 23일 용산역 ITX3 회의실에서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창립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 및 정기회의는 포럼위원 위촉장 수여, 익산시 철도정책 추진사업 설명, 김시곤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특별강연,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철도정책포럼 위원은 철도 계획, 철도 건설 및 공학, 철도 환승 및 물류, 유라시아 등 4개 분야 27명으로, 전국 철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익산시 철도정책의 방향 설정과 시의 철도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자문 및 정책을 건의하고, 특히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유라

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한교통학회 회장 김시곤 교수는 '익산역의 위상 정립과 전북권 교통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고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으로 KTX 호남선, SRT,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분기하는 철도 결절점에 해당해 전북의 거점역으로 육성하는 철도망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익산역이 선정되면 새만금 공항, 새만금 항만과 연결되는 물류의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K-Move school 운영기관 선정

군장대학교(총장 이승우)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이계철)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Move school'에 2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K-Move school은 싱가포르 외식조리 실무자 취업과정으로 지난해에도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5명이 싱가포르 호텔 및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해 근무 중에 있으며 현재 2기 교육생 9명이 3개월간 외국어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싱가포르 다이멘션 국제대학에서 실무연수 교육을 실증에 있다.

'K-Move school' 1기 교육생인 박유리 학생은 "외국어와 해외취업이라는 두려움에 도전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직무교육으로 현지 취업에 성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해외취업에 대한 기쁨의 소감을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